

2021년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이제는 녹색은총으로”

- 기후위기시대,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교회

2021년 5월 25일(화) 오후 2시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에홀

□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

인도 : 손은희 목사(교회협 생명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여는찬송 |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함께

오 소 서 - 오 소 서 평 화 의 - 임 금 우 리 가 -
 한 몸 이 루 게 하 - 소 서

* 2절 정의의 임금, 3절 생명의 임금

※ 예배로의 부름 | 다함께

인도자 :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녹색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창조세계와 함께 생명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함께 : 녹색은총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생명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멘

※ 찬 송 |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 다함께

1. 하 나 님 이 창 조 하 신 꽃 들 이 아 립 다 위 들 길
 2. 하 나 님 이 창 조 하 신 수 목 들 이 아 립 다 위 들 속
 3. 하 나 님 이 창 조 하 신 강 별 들 이 아 립 다 위 들 무
 4. 하 나 님 이 창 조 하 신 별 들 이 아 립 다 위 들 밤 하

따 라 핀 꽃 들 도 하 나 님 을 찬 양 하 네 밝 은 은
 에 과 자 시 나 무 길 가 나 님 을 감 호 하 가 네 은 은
 들 과 수 능 으 며 하 나 님 을 경 외 하 네 은 은
 들 을 고 운 노 래 를 온 찬 지 에 날 리
 바 다 이 푸 른 희 바 망 을 하 쉬 천 들 이 뻗 으
 되 어 닮 았 다 허 라 주 의 의 말 따 르

네 아 버 지 여 우 리 믿 음 꽃 들 처 럼 피 게 하 소 서
 네 아 버 지 여 우 리 믿 음 강 별 들 처 럼 피 게 하 소 서
 네 아 버 지 여 우 리 믿 음 강 별 들 처 럼 피 게 하 소 서

생명살림의 기도 | 박상용 부제(대한성공회 선교교육국 부장)

찬 송 | "631장 우리 기도를" | 다함께



말씀봉독 | 시편 104:24-33, 로마서 12:2 | 이해솔 간사(한국YMCA전국연맹)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 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니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시 104:24-33)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설 교 |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 인영남 목사
(교회협 생명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효동교회)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문 낭독 | 박세론 총무(예장청년회전국연합회)
신석현 목사(녹색교회네트워크 공동대표)

※ 파송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녹색은총을 힘입어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이 귀한 사역에 앞장서십시오.

다함께 :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 파송의 찬송 |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 다함께

류형선 작사, 작곡

D G/D A/D D G D/F# Em7 A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뜻한 오감을 나누며

Bm F#m G D/F Em C/E A(sus4) A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D Gm/D D F#7 Bm G D/F# Em7 A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 따르게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소서

Bm F#m G D/F# Em G A(sus4)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A A7 D A/C# Bm F#m7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

G D/F Em9 Em7/A G/D D
주의 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

※ 공동축도 | 다함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적 전환을 다짐하는 모든 이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위에, 창조주 하나님의 녹색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인 사 | 이흥정 목사(교회협 총무)

□ 2020년 녹색교회 시상식 □



축하합니다!

사회 : 이진형 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경과보고 및 소개 사회자

녹색교회 증서 및 명패 전달 맡은이

시 상

안홍택 목사(교회협 생명문화위원회 위원장)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2020년 녹색교회

검단참좋은교회(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승범 목사)

광주계림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최요한 목사)

빛마을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이희진 목사)

시온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영진 목사)

울산새생명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한기양 목사)

일벗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서정훈 목사)

전주고백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이강실 목사)

해남새롬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이호군 목사)

✦ 2020년 녹색교회 소개 ✦

✦ 검단참좋은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승범 목사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71 성광빌딩 301호

- * 환경주일을 지킵니다.
- * 환경특강을 열고, 환경도서를 선정하여 독서나눔을 진행합니다.
- * 목회자 부부가 지역 평생학습관 환경 챌린지 강의의 멘토로 참여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생태환경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의 상황 속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제로 웨이스트샵” 오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광주계림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최요한 목사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로34

- * 절기마다 환경문제에 대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특히 창조절 기간에는 창조세계 회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환경실천 운동을 진행합니다.
- * 예배당 신축 시 설계단계부터 대규모 햇빛발전소를 계획하여 설치하였으며, 빗물 저장소와 지하수 시설을 활용하여 옥상텃밭과 연못, 정원을 가꾸는데 활용하는 등 예배당을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건물로 조성하였습니다.
- * 식물 그림책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 교육을 진행합니다.

✦ 빛마을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이희진 목사 / 경북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5

- * 산촌유학센터, 카페, 예비사회적 기업 농업회사법인(주) 바보농부들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생태환경 지향의 선교활동을 펼쳐갑니다.

- * 종다양성을 지향하는 퍼머컬처 농업을 통해 육체적, 영적 치유를 경험하는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며, 생명밥상 운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 * 초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된 영주 지역에서 청년이 중심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기 위한 생태적 영성을 추구하며 노동과 살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 시온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영진 목사 / 충남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679-6

- * 보령시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가 된 온새로미 마을 축제 등 다양한 문화선교 사역을 통해 마을을 섬기고 있습니다.
- * 돼지 축사를 수목원으로 가꾸어(신죽리 수목원)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천북리 오케스트라 등 지역의 문화와 생태적 감수성을 연계한 다양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 건강한 지역 생태계 조성 and 친환경 농업을 일구는 일을 목회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교회의 여러 예전과 교육 속에서 생태적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 울산새생명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기양 목사 / 울산시 남구 봉월로140번길 16

- * 1989년 교회 창립 첫 해부터 ‘공해교실’을 개설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환경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 * 환경선교 차원에서 “태화강 십리 대숲 살리기”, “태화강 살리기” 등을 지역 사회와 함께 펼쳐감으로써 ‘생태도시 울산’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 최근에는 “울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금요기후행동을 펼쳐가는 등 기후위기로부터 창조세계를 지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일벗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정훈 목사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배우개길69번길27-22

- * 사회적기업 ‘콩세알’을 통해 친환경 농업, 전환적 삶, 돌봄 농업, 친환경

먹거리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인근 대안학교, 지역 단체들과 함께 로컬푸드운동, 식생활 교육 등을 펼쳐감으로써 공동체적 지역 문화와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 생태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모임과 창조세계의 신비와 은총을 느끼는 자연 속 예배를 통해 생태적 영성을 훈련하고 있으며,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다짐하는 신앙고백문을 만들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 전주교백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이강실 목사 /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1길 6

- * 창립 때부터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천해 왔으며, 현재는 '우주생명위원회'가 조직되어 전 교인이 환경지킴이로서 플라스틱 제로, 탄소 제로 등의 행동지침을 담은 '생명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 * 나눔장터, 야생화 가꾸기, 어린이들을 위한 친환경채식요리교실 <채소야 고마워> 등을 진행합니다.
- * 지역사회 현안인 새만금 문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재배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위한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해남새롬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이호군 목사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서림길5

- * 지역아동센터, 바자회, 푸드뱅크, 청소년 카페, 나눔 냉장고, 초록가게 등을 운영하며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자원순환 운동을 펼쳐갑니다.
- * 특히 초록가게에서는 지역 내 15개 헌 옷 수거함을 통해 수거된 옷을 저렴한 가격으로 나누고 남은 물량은 해외의 저소득국가에 보내는 등 지역 사회의 자원순환, 재활용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문 □

수많은 전문가들이 10년 이내에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생태계의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부분의 생물 종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류 스스로가 자초한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기독교교계의 목소리를 모아 절박한 심정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고백: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의지하며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생태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유의 하나님께서 인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태계가 그러하듯이 우리 인간도 형제자매 피조물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기적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므로 창조세계를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참회: 우리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보전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깊이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지구생태계 파괴와 피조물의 희생을 담보로 얻은 경제발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기복신앙에 취한 채 영혼구원만을 강조하고 이 땅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지난날의 죄악을 참회합니다.

진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당대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 모범을 따라 다시 돌이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자연을 희생시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과 인류의 과도한 개발과 과소비로 인한 기후위기는 지구생태계와 인류사회 모두를 위기에 빠뜨린 당면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또한 인류의 과도한 탐욕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주거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지구생태계와 인류사회 보존을 위해 온실기체 감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와 시민사회는 온실기체 감축을 위해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적절한 소비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정책, 기업의 상품생산과 판매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 9월 국회가 통과시킨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문'과 2020년 10월 정부가 천명한 '2050년 탄소중립'을 환영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기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기후위기 준비를 미루자는 목소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온실기체를 만들어내지 않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늦어질수록 한국의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EU가 주축이 되어 논의하고 있는 탄소국경세금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은 미국, EU,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만 2023년에는 6,100억 원, 2030년에는 1조 8,700억 원에 달하는 탄소국경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요구: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요구합니다.

우리는 공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자 한국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 국회, 기업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온실기체 감축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생명을 파괴하는 경제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신 기후 세계체제에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기업이 거국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석탄발전소 중지, 내연기관차 금지 등의 조치와 함께 자연재생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신속히 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기업들은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이 기업의 생존에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온실기체를 감축하는 생산 유통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결단: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결단합니다.

우리는 한국기독교를 대표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후위기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 교단과 지역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기후위기 비상행동 플랫폼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목회 매뉴얼을 개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생활과 일상생활, 사회조직 속에서 탄소 저감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세계교회와 함께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JPIC)이라는 에큐메니칼 신앙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연구자, 신학자, 기독교민운동 그룹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선교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위해 출범한 <기후위기 기독교신학포럼>과 <생태정의아카데미>와 연대하여 국내 기독교대학교 및 신학대학교에서 기후위기사대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0일

제38회 환경주일연합예배 참가자 일동